

【고장의 영웅 세노타로 카네야스】

안녕하세요. 오카야마 시장 오모리입니다
이번엔 우리 고장의 영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 미나미 구에서의 학습회에 갔을 때 「세노타로 카네야스의
『헤이케 이야기』를 여러 책 중에서 읽고 비교함」이라는 책을
받았습니다.

저자의 세노 츠기오씨는 50대 후반부터 10년 가까이 걸쳐, 30여 종류의
헤이케 이야기를 정성껏 읽어 메모를 만들고 집필 작업에 들어가
「헤이케 이야기」에 그려져 있는 세노타로 카네야스 라는 인물에 대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노씨에 따르면, 빗추국 세노향을 본거지로 하는 헤이시의 무장이었던
카네야스는 「헤이케 이야기」의 처음 부분에서는 일개의 「빗추국
거주자」로 다루어져 그 인물상도 벽촌의 절에서 헤이케에 수많은 악행을
행한 악행 자라는 매우 부정적인 것이었음에도 그 후 이야기에 종종
등장하는 가운데 그 이미지는 바뀝니다.

마지막에는 「세노(瀬尾)(어떠한 사정으로 세노(妹尾)에서 바뀌었다고도 함)
의 최후」라는 장까지 있어 이후, 이 변천의 수수께끼도 풀어보고 싶다는
의욕도 보이셨습니다.

또한, 카네야스는 「타타이 열두 개 마을 용수 (※)」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업적도 있어 지역에는 카네야스를 제신으로 모시고 있는

카네야스 신사가 있고 업적을 기리는 행사도 있다고 합니다.

확실히 카네야스는 일본, 그리고 오카야마의 역사를 논할 때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인물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고전 문학 작품인 「헤이케 이야기」에 그 이름을 남기고 있는 것을 포함해 오카야마의 오늘날 발전의 주춧돌을 쌓아 올린 인물 중 하나인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저자의 세노씨처럼 지금까지 그다지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한 향토의 영웅을 꾸준히 조사해, 많은 분께 알리는 것은 정말 좋은 일입니다.

나도 다시 한 번 수많은 선인에 의해 이루어진 수많은 위업을 생각하면서 고향에 대한 정체성을 높이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타타이 열두 개 마을 용수

오카야마 삼대 하천의 하나인 다카하시 강에서 취수하여 소자 시에서 남동쪽 방향으로 열두 개 마을을 적시고 코지마 만에 이르는 대규모 용수. 현재도 오카야마 평야의 농업용수로 빼놓을 수 없다.